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김 경 회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수준과 특성을 발달적 측면과 성차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217명과 고등학교 1, 2학년 153명이었다. 2개의 이야기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이를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도덕성의 준거로서의 정직과 친절에서 학년차와 성차가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Kohlberg의 도덕판단 스테이지(1969, 1976)는 아동의 도덕적 추리를 이해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Kohlberg은 갈등에 대한 개인의 추리를 다루었는데, 그 후 몇몇 연구자들은 도덕영역과 사회적 관습 영역을 구별했으며(Damon, 1977; Turiel, 1975), 도덕 영역내의 여러 가지 갈등유형을 연구했다(Damon, 1977).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해보면, 대인적 상호관계 개념을 다룬 대인적 도덕 추리(Damon, 1977; Gilligan, 1977; Haan, 1978, Gilligan, Kohlberg, Lerner & Belensky, 1971; Selman, 1976;

Youniss, 1975), 분배적 정의(Damon, 1977; Piaget, 1932), 친사회적 도덕적 갈등 추리(Eisenberg-Berg, 1976)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적 도덕추리와 친사회적 도덕적 갈등추리만을 살펴보겠다.

Eisenberg-Berg(1979)는 125명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도덕 판단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추리는 쾌락주의적이고, 상동적이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인 지향적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더불어 빈도가 감소한 반면에, 내면화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이

입적 사고와 판단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였다.

Haan(1978)이 Kohlberg식의 도덕적 판단체계를 평가하는데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도덕적 추리의 기초원리로서 형식적 수준의 인지 조작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화되지 않은 집단과 하류 집단은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며, 미국의 성인 여성은 남성보다 빈도에 있어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며 Kohlberg의 3단계에 “고착”되어 있고(Haan, Lerner & Kohlberg, 1976 ; Holstein, 1976), 지적화(intellectualizing)와 방어적 자아과정은 높은 도덕 수준과 정직으로 연합되어 있다.

즉, 사고에 있어서 형식적 조작 수준에 있으며, 산업화되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살며, 방어적이며 지적화되고, 대인관계 및 사태적인 세부사항을 거부하는 남성의 도덕적 추리는 Kohlberg 도덕체계에서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인적 도덕성에 관한 Lamborn, Fischer 와 Pipp(1994)의 연구에서 9세부터 20세에 이르는 113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도덕적 개념 발달을 평가했다. 즉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거짓말을 준거로 하여 정직과 친절의 발달적 순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자들이 발달시킨 “정직과 친절에 관한 이야기”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에서 정직과 친절에 대해 9세에서 12세 아동은 구체적 개념을, 13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은 단순한 추상적 관계를, 그리고 16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은 복잡한 추상적 관계를 나타냈다.

정직과 친절에 관련된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로 대인지각 발달(Barenboim, 1981; Berndt & Berndt, 1975), 조망수용(Selman, 1980), 도덕추리(Kohlberg, 1976; Piaget, 1932), 대인관계 이해(Baldwin & Baldwin, 1970 ; Bussey, 1992 ; Youniss, 1980)를 들 수 있다.

Baldwin과 Baldwin(1970)은 대인 관계에서 아동의 인지적 이해 발달을 다룬 연구에서 친절에 대한 아동의 개념 발달을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유치원생, 2, 4, 6, 8학년 아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그림이 있는 10개의 이야기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Baldwin과 Baldwin은 순수심리학적 입장에서 친절에 관한 직관이론(intuitive theory)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관 이론에 의하면, 친절은 적절한 사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실에서 추론되는 동기이며, “의도적 행위” 만이 행위자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고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연령차는 있었으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Baldwin과 Baldwin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연령에 따라 친절 개념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절 행동은 비의도적인데서 의도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는 200명의 5, 8, 9, 11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거짓말의 정의는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11세 아동은 신뢰와 공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한데 비해서, 이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권위와 벌의 제재에 지향되어 있으며, 성인들은 아동에 비해서 도덕적 평가에서 너그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Berndt(1991)는 이론과 연구를 기초로 친구들 사이에 대화의 특징을 이끌어 냈다. 친한 친구들의 대화는 덜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보다 깊은 상호관계, 곧 친밀한 자기-노출(self-disclosure) 나타내며, 정서적이며, 불일치와 비판도 많고, 서로

의 요구에 반응하고, 돕거나 나누며, 공평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

Bussey(1992)는 유치원생(5세), 2학년(8세), 5학년(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거짓 진술과 사실진술에 대한 정의, 도덕 수준 및 내적 평가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들 판단에 대한 4가지 요인인 진술의 허위성, 진술내용, 진술을 믿는지 여부, 그리고 진술이 벌을 받을지의 여부도 조사되었다. 연구결과에서 2, 5학년 아동들은 모든 진술을 거의 정확하게 평가한 반면, 유치원생은 거짓 진술과 사실진술에 각각 70% 정도를 옳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거짓말은 사실진술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치원생은 2, 5학년에 비해서 벌이 도덕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들과 측정 방법에 대한 고찰과 재조명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Kurdek(1978)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도덕 발달의 인지적 기초로서 조망 수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덕과 조망 수용을 다차원적 구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과, 이러한 구인들이 신뢰롭고 생태학적으로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 낸 바 있다.

Gibbs(1991)는 Kohlberg와 Hoffman의 이론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이론은 도덕적 동기와 발달을 이해하는데 보완적인 공헌을 했지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Kohlberg의 이론은 개인의 점차 성숙한 도덕적 의미를 발달시켜 가는 것과, 평등과 상호성에 의해서 도덕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Hoffman의 이론은 사회의 도덕 규범 전달을 내면화를 통한 감정이입적 감정(예 : 죄의식)을 도덕적

동기의 기초로 보고 있다. 따라서 Kohlberg의 도덕의 인지적 측면과 Hoffman의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도덕성과 도덕 발달의 범위와 다양성을 더욱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Gibbs는 결론짓고 있다.

Moshman(1995)은 도덕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4가지 수준을 제안하였다. 수준 1은 3세 이전까지의 절대적 합리성 수준으로, 무언의 비체계적, 불안정한 단계이며, 수준 2는 외현적(explicit) 합리성 수준으로 3세 이후에 발달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거나, 여러 가지 규칙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도덕적 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준 3은 외현적 윤리 수준으로 청년기에 시작되며 윤리적 체계와 원리를 따르며 수준 2보다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으며 안정되어 있다. 수준 4는 외현적 상위 윤리 수준으로 가장 높은 단계로 도덕적 합리성과 정당화에 근거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의 소지가 많은 단계이다.

Thoma와 Rest(1999)는 중학생 260명, 고등학생 257명, 대학생 234명, 그리고 대학원생 268명(총 10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덕적 발달단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타협적인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변화할 때는 도덕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단계와 교육정도에 따라서 증가했다.

Thoma와 Rest는, 사회적 도덕성의 발달은 Kohlberg의 도덕단계와 일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에서 개관된 바와 같이, 1990년에 들어와서 아동,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도덕성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여 사회적 도덕의 준거로서 정칙과

친절에 관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직과 친절을 준거로 한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는 김경희(1999)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남녀 300명과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하여 2개의 이야기를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도덕성의 준거로서의 정직과 친절에서 유의한 학년차와 성차가 보고되었다. 즉 개인적 사태에서는 정직을, 사회적 사태에서는 친절을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정직의 정도와 친절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별로 보아 개인적 사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직을, 사회적 사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친절을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특히 김경희(1999)의 후속연구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도덕성 수준과 특징을 발달과 성차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중학교 1, 2, 3학년 217명과 고등학교 1, 2학년 153명 등 37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9)의 후속연구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학년별, 성별로 본 연구 대상자 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 수

학년(평균연령)	학년		
	남	녀	계
중1(12.9)	39	30	69
중2(13.7)	41	32	73
중3(14.9)	43	32	75
고1(15.8)	34	40	74
고2(16.8)	22	57	79
계	179	191	370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상황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Lamborn, Fischer와 Pipp(1994)가 제작했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했다. 이야기들은 갈등 사태에서 판단을 요구하고, 그 판단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유를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야기 1>은 두 친구가 모두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한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는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1>은 자신이 개입된 개인적 사태이다.

<이야기 2>는 한 아동이 그린 그림을 친한 두 친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렸는지 물어 보았는데, 한 친구는 생각과는 달리 잘 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잘 못그렸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2>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태이다.

<이야기 1>과 <이야기 2>에 대해서 각각 피험자에게 자신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인가의 의도를 물어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적 거짓

말(social lie: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물었다.

절 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9년 9월과 10월에 걸쳐 2명의 자료 수집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중·고등학교 교장의 협조를 얻어서 학년 별로 따로 실시되었으며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내용 분석

두 개의 이야기에 응답한 판단과 동기를 내용 분석하여 4개의 단계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이 범주화는 Lamborn과 그의 동료들의 범주화에 따르지 않고 본 연구자가 범주화한 것이다. 범주화과정에서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 두 명간의 일치도는 95%이상이었다.

다음 단계의 순서는 위계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단계(구체적 정직) : 정직은 절대적 권위나 별지향적인 것(예 : “거짓말은 나쁘다”, “거짓말하면 안된다”).

2단계(사회적 정직) : 정직은 권위나 별지향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고려하는 것 (예 : “자기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친구사이에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실대로 얘기한다”).

3단계(구체적 관계 개념) : 타인과의 상호관계

에서 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친절의 표시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보호와 자기방어를 위해서 정직함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

4단계(사회적 관계 개념) :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타인과 자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

통계적 분석

내용 분석 결과 4단계별로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 빈도에 있어서 학년차 및 성차의 여부를 χ^2 로 검증하였다.

결 과

이야기 1, 이야기 2, 사회적 거짓말의 필요성 여부의 결과를 순서에 따라 학년별, 성별로 제시하였다.

1. 이야기 1

<표 2>는 학년별, 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에 관한 갈등 상태에서의 판단은 학년별, 성별에서 일관성있게 2단계인 사회적 정직에 의해서였다. 2단계의 판단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의 학년간 차이는 의미있는 것이었다($\chi^2=24.587$, $p<.05$, <표 3> 참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3단계인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2단계의 판단비율이 많았다. 즉 남자 청소년은 3단계인 친절요인에 따라,

표 2 <이야기 1>의 학년별로 본 성별빈도 및 백분율

학년 성별 단계	중1				중2				중3				고1				고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단계	9	22.5	0	0.0	9	22.0	5	15.6	8	19.0	1	3.0	7	20.6	2	5.0	0	0.0	1	1.8
2단계	24	60.0	26	89.7	25	60.9	24	75.0	26	61.9	30	90.9	26	76.5	37	92.5	19	86.4	53	92.9
3단계	7	17.5	2	6.9	7	17.1	3	9.4	7	16.7	2	6.1	1	2.9	1	2.5	3	13.6	3	5.3
4단계	0	0.0	1	3.4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40	100.0	29	100.0	41	100.0	32	100.0	42	100.0	33	100.0	34	100.0	40	100.0	22	100.0	57	100.0
χ^2	11.394, p<.05				1.679, n.s				8.551, p<.05				4.240, n.s				1.928, n.s			

표 3 <이야기 1>의 학년간 차의 의의도

주제 학년 단계	이야기1											
	중학교1		중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1		고등학교2			
	n	%	n	%	n	%	n	%	n	%		
1단계	9	13.0	14	19.2	9	12.0	9	12.2	1	1.3		
2단계	50	72.5	49	67.1	56	74.7	63	85.1	72	91.1		
3단계	9	13.0	10	13.7	9	12.0	2	2.7	6	7.6		
4단계	1	1.5	0	0.0	1	1.3	0	0.0	0	0.0		
계	69	100.0	73	100.0	75	100.0	74	100.0	79	100.0		
χ^2	24.587 p<.05											

표 4 <이야기 2>의 학년별로 본 성별빈도 및 백분율

학년 성별 단계	중1				중2				중3				고1				고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단계	4	10.0	0	0.0	2	4.9	2	6.3	1	2.4	1	3.0	1	2.9	2	5.0	1	4.5	0	0.0
2단계	16	40.0	9	31.0	11	26.8	7	21.9	7	16.7	10	30.3	14	41.2	8	20.0	7	31.8	13	22.8
3단계	18	45.0	17	58.6	23	56.1	20	62.4	22	52.3	19	57.6	15	44.1	21	52.5	10	45.5	33	57.9
4단계	2	5.0	3	10.4	5	12.2	3	9.4	12	28.6	3	9.1	4	11.8	9	22.5	4	18.2	11	19.3
계	40	100.0	29	100.0	41	100.0	32	100.0	42	100.0	33	100.0	34	100.0	40	100.0	22	100.0	57	100.0
χ^2	4.551, n.s				.496, n.s				5.143, n.s				4.435, n.s				3.562, n.s			

여자 청소년은 2단계인 정직요인에 따라 판단했다. 이러한 성차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며 ($\chi^2 = 27.419, p < .001$)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그러했다($\chi^2 = 11.394, p < .05$).

자신이 강하게 개입된 갈등사태인 <이야기 1>에서 판단 기준은 거짓말보다는 정직에 의한 것이 빈번했다.

2. 이야기 2

<표 4>에 <이야기 2>의 학년별, 성별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사태를 해결하는 판단에는 의미있는 학년차와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년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빈도로 2단계인 정직보다는 3단계인 일상적 친절로서 거짓말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chi^2 = 12.677, n.s.$, <표 5> 참조).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거짓말을 하는 3단계가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친구관계에서 정직한 2단계의 빈도가 많았으나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다($\chi^2 = 3.091, n.s.$).

3. 사회적 거짓말의 필요여부

다음 <표 6>에 학년별, 성별로 사회적 거짓말의 필요여부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표 5 <이야기 2>의 학년간 차의 의의도

주제 학년 단계	중학교1		중학교2		이야기2 중학교3		고등학교1		고등학교2	
	n	%	n	%	n	%	n	%	n	%
1단계	4	5.9	4	5.5	2	2.7	3	4.1	1	1.3
2단계	25	36.2	18	24.7	17	22.7	22	29.7	20	25.3
3단계	35	50.7	43	58.8	41	54.6	36	48.6	43	54.4
4단계	5	7.2	8	11.0	15	20.0	13	17.6	15	19.0
계	69	100.0	73	100.0	75	100.0	74	100.0	79	100.0
χ^2	12.677 n.s									

표 6 학년별,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짓말 필요여부의 빈도 및 백분율

학년 성별 단계	중1		중2				중3				고1				고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불필요하다	10	25.0	6	20.7	12	29.3	7	21.9	11	26.2	7	21.2	15	44.1	10	25.0	4	18.2	6	10.5
필요하다	30	75.0	23	79.3	29	70.7	25	78.1	31	73.8	26	78.8	19	55.9	30	75.0	18	81.8	51	89.5
계	40	100.0	29	100.0	41	100.0	32	100.0	42	100.0	33	100.0	34	100.0	40	100.0	22	100.0	57	100.0
χ^2	.175 n.s		.510 n.s				.251 n.s				3.003 n.s				.841 n.s					

표 7 (사회적 거짓말)의 학년간 차의 의의도

주제 학년 거짓말 필요여부	사회적 거짓말									
	중학교1		중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1		고등학교2	
	n	%	n	%	n	%	n	%	n	%
불필요하다	16	23.2	19	26.0	18	24.0	25	33.8	10	12.7
필요하다	53	76.8	54	74.0	57	76.0	49	66.2	69	87.3
계	69	100.0	73	100.0	75	100.0	74	100.0	79	100.0
χ^2					9.695					
					p<.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거짓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반응빈도는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빈도 경향은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집단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chi^2 = 9.695, p < .05$, <표 7> 참조).

이야기 2에서 나타난 3, 4단계, 곧 친절로서 거짓말과 사회적 거짓말과의 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알아본 결과 .641 ($p < .0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수준과 특성을 발달적 측면과 성차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정직과 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13~17세)에 나타나는 정직과 친절의 구체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의 발달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대인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과 이해를 함께 다루었는데 비해(Eisenberg-Berg, 1979 ; Hoffman, 1970; Kohlberg

1976 ; Piaget 1932; Selman, 198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의 판단을 개인적 사태와 타인과의 관계 사태로 나누어 다루었다.

Gibbs(1991)의 개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적 사태(이야기 1)는 Kohlberg의 이론에, 사회적 사태(이야기 2)는 Hoffman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도덕 판단의 준거로서 정직과 친절 개념은 학년차와 성차를 보였다. 정직 요인은 개인적 사태에서, 친절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태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과 친절이 “구체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해 가는 본 연구 결과는 Eisenberg-Berg(1979), Fischer와 Lamborn(1989), Lamborn과 그의 동료들(1994), 그리고 Veney(1992)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1999)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Bussey(1992)가 지적한 대로 아동은 도덕판단의 기초로 벌에 의존하다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평가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개인적 사태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사태에서 정직의 빈도가 높았던 본 연구

의 결과는 거짓말을 정직보다 나쁘게 판단한다는 Bussey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가정하는 자기-조절 발달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 사태에서 나타난 사실과 거짓에 대한 자기-평가적 반응은 Peterson과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며, 이는 Moshman(1995)이 제안한 도덕적 합리성의 수준 2(아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김경희(1999)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사회적 사태에서 사회적 관계와 내면화된 관계로서 정직을 포기하고 친절로서 거짓말을 선택한 판단(3, 4단계)은 Eisenberg-Berg(1979)와 Berndt(199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적인 대인관계 사태에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정직과 친절을 어떻게 관련시키나를 다룬 결과는 친사회적 해결(친절)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인지간, 그리고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경쟁간의 연결은 친사회적 사태에서 대단히 명확하다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Fischer, 1980; Ford, 1980; Kurdek, 1978; Pellegrini, 1985).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직과 친절의 결과는 Haan(1978)이 사소한 바와 같이, 대인 관계적 도덕성은 형식적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지체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의 거짓말의 필요성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Thoma와 Rest(1999)의 주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서 흥미있는 것은 아동과 청년의 정직과 거짓말 경향(김경희, 1999)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도덕적 발달 단계 특

징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히 친구와 같은 대인 사태에서는 갈등해결 판단이 도덕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Berkowitz와 Keller (1994), Damon과 Hart (1988), 그리고 사회적 도덕발달은 Kohlberg의 도덕단계와 같지 않다는 Thoma와 Rest(199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짓말은 도덕의 발달단계이론으로 설명되는 속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절하며 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다는, 곧 Kohlberg의 사회적 상동형인 3단계 (good-boy-girl orientation)에 고착되어 있다고 한 Haan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친절하며 거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형식적 도덕성의 지체라고 보기보다는Turiel(1975)의 사회적 인습(social convention)의 명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적 딜레마 사태에서는 Kohlberg의 도덕판단 단계이론으로,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사태에서는 Hoffman의 사회적 인습단계이론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정직과 친절로 나타난 사회적 도덕성은 도덕의 합리성이란 차원에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개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제안은 추후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갈등 사태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개인적 사태에서는 정직을, 사회적 사태

에서는 거짓말을 갈등 해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발달적으로 인습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아 개인적 상태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정직을, 사회적 상태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거짓말을 갈등 해결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짓말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끝으로 Baldwin과 Baldwin(1970)의 친절 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와 Eisenberg-Berg (1979)의 제안 및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거짓말 개념 발달의 연구 결과에 지지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연구에서 시도된 사회적 도덕성의 단계를 “4단계”로 잠정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4 단계는 순서는 위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순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1976). 한국 아동의 도덕관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1, 9-25.
- 김경희(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4-24.
- Astington, J. W., & Olson, D. R. (1995). The cognitive revolution in children's understand of mind, *Human Development*, 38, 179-189.
- Baldwin, C. P., & Baldwin, A. L. (1970). Children's judgments of kindness. *Child Development*, 41, 29-47.
- Barenboim, C.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From behavioral comparisons to psychological constructs to psychological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52, 129-144.
- Baumrind, D.(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erkowitz, M. W., & Keller, M.(1994). Transitional processes in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447-467.
- Berndt, T. J. (1987). The distinctive feature of conversations between friends ; Theorie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omoral development. In :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raction*. New York : Wiley & Sons.
- Berndt, T. J., & Berndt, E. G.(1975). Children's use of motive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6, 904-912.
- Bussey, K.(1992). Lying and truthfulness :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Damon, W.(1975). Early conceptions of positive justice a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gical operations. *Child Development*, 46, 310-312.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 Bass.
- Damon, W., & Hart, D.(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Berg, N.(1979).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 Psychology*

- logy, 15, 128-147.
- Eisenberg-Berg, N., & Mussen, P. (1978).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85-186.
- Fisc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ischer, K. W., & Lamborn, S.(1989). Mechanisms of variations in developmental levels: Cognitive and emotion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In A. de Ribapierre(Ed). *Transition mechanisms in child development: The longitudinal perspective* (pp.33-6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 M.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ibbs J.C.(1991). Toward an integration of Kohlberg's and Hoffman's moral development theories. *Human Development*, 34, 88-104
- Gilligan, C.(1977). In a different voice :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Gilligan, C., Kohlberg, L., Lerner J., & Belensky, M.(1971). Moral reasoning about sexual dilemmas : The development of an interview and scoring system. *Technical Report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Vol. 1 : 415 060-137).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aan, N., Langer, J., & Kohlberg, L.(1976). Family moral patterns. *Child Development*, 47, 1204-1206.
- Haan, N.(1978). Two moralities : Reasoning, action, development and ego regulation in white and black adolescent.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36, 286-305.
- Holstein, C.(1976). Irreversible, step- wise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47, 51-61.
- Hoffman, M. L.(1970). Moral develop- ment.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2, pp. 261-359). New York : Wiley.
- Kagan, J. (198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 Basic Books.
- Kagan, J., & Lambs, S.(Eds.)(1987).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Univer -sity of Chicago Press.
- Kohlberg, L. A.(1969).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New York :Rand McNally.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Es.),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pp. 31-35).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Lamborn, S., Fischer, K. W., & Pipp, S.(1994). Constructive criticism and social lies: A development sequence for understanding honesty and kindness in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 logy*, 30, 495-508.
- Moshman, D.(1995). The construction of moral

- rationality. *Human Development*, 38, 265-281.
- Pellegrini, D. S.(1985). Social cognition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Peterson, C.C., Peterson, J. L., & Seeto, D.(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Harcourt, Brace.
-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 Rest, J. R.(1983). Morality. In P. Mussen(Series ed.), J. H. Flavell & E. M. Markman(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 pp 556-629)(4th ed.). New York : Wiley.
- Selman, R(1976).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asoning. In A.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Thoma, S. J., & Rest, J. R.(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decision making and patterns of consolidation and transition in moral judgme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23-334.
- Turiel, E., & Rothman, G. R.(1972). The influence of reasoning on behavioral choice at different stages of m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3, 741-756.
- Turiel, E.(1975).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 In D. Depalma & J. Foley(Ed.), *Moral development*. Hillsdale, N. J. : Erlbaum.
- Viney, L. L.(1992). Can we see ourselves changing? Toward a personal construct model of adult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5, 65-75.
- Watson, M, W., & Fischer, K. W.(1980). Development of social roles in elicited and spontaneous behavior during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84-494.
- Youniss, J. (1980). *Parent and peers on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ouniss, J.(1995). The still useful classic concept of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8, 373-379.

Sociomoral Judgment in Korean Adolescents : A Developmental Sequence for Understanding Honesty and Kindness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reasoning about sociomoral dilemmas, and 2)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honesty and kindness of sociomoral judgment to story solution. Two dilemma stories for assessing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honesty and kindness were administered to 217 junior high school, and 157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chi-squares were applied to examine grades- and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grades- and no gender differences in sociomoral judgment. Adolescents' reasoning tended to be stereotyped, approval and interpersonally oriented. Stereotyped judgments (honesty) of self-oriented reasoning or internalized values increased in frequency with age, and also judgments of interpersonally or approval-oriented reasoning (social lie as kindness) increased in use with ag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and suggested.